

이름: 정희수	이메일: zachaes-jhs@hanmail.net
나이: 42 직업: 선교단체 간사	거주지역: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본 행사 참여경험	☒ 2013 ☐ 2014 ☒ 2015
(우측 해당란에 √ 체크해 주세요):	☐ 2016 ☐ 처음 참여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없는 벌진 피산 같은 내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셨다. 황량하고 삭막한 내 마음에 조용히 앉아계시면서 사랑으로 내 이야기를 들으신다. 내 생각에는 주님이 무척 심심하실 것인데 전혀 그런 내색이 없으시다. 이미 내 마음은 오아시스다. 샘이 흘러나오고 이름 모를 꽃들이 화사하다. 지금 나는 한없는 사랑과 기쁨을 느끼며 감사와 감격 속에 있다. 이제부터 나의 고백은 내 생활을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다. 나는 지금까지 자의적으로 이곳에 온 줄 알았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다 못해 기다시리다 못해 기도로, 끝없는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위했다. 주님은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눈을 맞으시며, 비바람 속에서도, 수치와 모멸을 받으면서도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이미 그 언제부턴가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아무 말도 못하시고 내가 내쫓은 문밖에서 우시면서 사랑으로 살고 계시었다. 이제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되었다. 주님을 이야기하고, 그 피를 전하지 않고는 살지 못하게 되었다. 아무 겨를도 없이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게 되었다. 날마다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싶습. 주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삼고 싶고 나를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고 그 품에 안기고 싶다. 주님만 생각해도 위안과 은혜를 느끼며 살고 싶다. 주님만 생각하면 기쁘기 한이 없는 삶을 살고 싶다. 정성스럽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싶다. 그리스도 때문에 소문 없이, 아무런 명예도, 돈도, 권세도 없이 씨알처럼, 바보 같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영원히 주님을 사모하고 싶다. 일생을 찬송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싶다. 일생을 내 입은 주님을 노래하고 싶다. 일생을 주님을 생각하며 신을 신고, 세수도 하고, 밥을 먹고 싶다.

용지가 부족할 경우 다음 장을 사용해 주세요

“5월 12일 일기 수집 이벤트”는 인간과 기억 아카이브와 영국 서섹스 대학교의 대중관찰아카이브 (MOA: Mass Observation Archives)가 공동 주최하는 역사프로젝트입니다. 기증하신 일기는 21세기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기록화하는 중요 자료로써 학술연구와 교육, 전시, 출판 등 문화 콘텐츠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귀하의 콘텐츠 공개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네, 동의 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문 학술연구진만 제 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http://hmarchives.org/omeka/512diary/index.html>